

[反빈곤네트워크 성명]

참혹한 용산참사를 떠올리는 대구도심에서 벌어진 동안3-1재개발 재난참사,
광란의 반인권적 폭력철거를 중단하고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코로나19로 외출자제와 생활방역으로 대구시민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지난 4월 24일, 대구도심은 전쟁터가 되었다. 대형스카이 2대, 철거컨테이너, 포크레인 2대, 지게차, 고소작업차 등 살인무기로 쓰일 중장비와 철거용역강패 백여 명과 경찰 버스 8대 동원하여 대구중구청 인근 동인3-1지구 철거현장은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원주민에게 가해진 폭력과 광란의 현장이었으며, 참혹하였던 용산참사를 재현하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동인3-1지구 재개발현장은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공동주택 63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철거민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로 그동안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조합측과 중구청에 순환식 개발을 비롯해 이주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재개발 조합측은 대화를 중단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면서 강제철거를 자행하였다.

재개발조합측은 이미 지난 3월 30일 한 차례 강제철거를 진행한 바 있으며, 4월 24일 또 다시 강제철거를 폭력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백여 명의 철거용역반의 크레인에 철제 H빔을 연결해 동인동 동인 3-1지구 재개발사업 건물 옥상 가건물 주변을 공격하고 심지어 가건물 안에 주민 약 30여 명이 고립되어 있어도 사람 머리 H빔을 충돌시키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25일에는 철골을 이용해 망루 주변을 철거한 뒤 컨테이너에 용역강패들을 태워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했으며 크레인에 달린 추로 농성자들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철거민 3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중경상을 입었다.

더구나 26일 현재, 망루에 농성중에 있는 철거민들의 물, 음식 그리고 응급약의 공급마저 용역강패들이 막아서고 있다. 또 다시 용역강패에 의한 강제철거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국민과 철거민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생존권마저 훼손하고 있다.

동인3-1지구 재개발 현장의 아비규환 전쟁터는 결국 누구를 위함인가?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건설자본의 이해와 몇 몇 소수의 건물주와 지주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강제철거의 위협과 용역강패의 협박으로 피눈물로서 대다수가 쫓겨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동인3-1지구의 강제철거라는 이름으로 폭력적 전쟁터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비단 동인3-1지구뿐 만인가?

대구 곳곳에서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

2018년 12월 현재, 대구시의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계획은 209개소이고 도시정비사업 예정 구역은 152개소나 되고 있다. 즉 수성못 45배 맞먹는 대구지역의 토지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개발 중(?)'에 있는 것이다.

특히 대구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은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으로 건설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강제퇴거를 수반해 원주민과 주거입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토끼몰이 하듯이 도시정비사업이 다반사다. 특히 이러한 폭력은 법적인 퇴거절차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거주민 이주와 공가관리라는 명목으로 이루어 지는데 철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한 철거업체들이 사실상 주민 이주업무까지 수행하면서 철거용역들은 이주 종용을 위해 일상적인 폭력을 벌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건설자본 시행사, 도시정비를 위한 조합, 도시정비 과정을 반대하는 원주민, 주거를 하고 있는 주거세입자, 생계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상가세입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개입과 중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언제까지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 도시정비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대구시는 방치할 셈인가? 이에 동인3-1지구의 폭력적 강제철거는 재개발조합의 폭력이기도 하지만 이를 용인하거나 방치하는 대구시의 책임이 더욱 본질적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으로 벌어질 수 있는 폭력적 강제철거를 예방하고 동인3-1지구 재개발현장의 폭력적 행위가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대화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대구시의 도시정비사업으로 벌어지는 강제철거를 위한 철거용역의 폭력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하나. 동인3-1지구 조합은 재개발현장의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하고 철거민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고 조속한 대화로서 원만한 합의를 하라!

하나. 대구시는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하나. 대구시는 도시정비사업법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적 반인권적 강제철거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대구시는 도시정비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도시정비사업 사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라!

2020. 4. 27.

反빈곤네트워크 대한민국의철거피해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쪽방상담소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전국민주노점상연합회대구지부 인권운동연대